

전북도, ‘올림픽데이런’으로 하계올림픽 유치 의지 알려

‘올림픽데이런 2025 in 전주’ 성료
지방서 첫 개최… 6000명 참가
스포츠-문화 결합된 참여형 축제
운영경험 등으로 유치 기반 마련

전북특별자치도는 ‘올림픽데이런 2025 in 전주’가 16일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6000명의 참가자와 함께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서울 중심의 스포츠 행사를 넘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연대도시 전략의 상징적 출발점이다.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전북의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지방도시의 역량을 전국에 선보이는 계기가 됐다.

올림픽데이런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공식 인증한 국내 유일의 올림픽 행사다. 전북특별자치도와 대한체육회, 전주시가 공동 주관하며, IOC 창설일(6월 23일)을 기념해 올림픽 정신을 확산하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서울에서만 4차례 개



16일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에서 ‘올림픽데이런 2025 in 전주’가 열린 가운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경기를 치르고 있다.

최됐으며, 이번 대회는 처음으로 지방에서 열린 역사적 무대다.

대회는 하프코스, 10km, 5km 세 종목으로 구성돼 오전 9시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접수 시작 직후 6000명 참가자 전원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았으며, 20~40대 청년층이 90%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전주의 활기찬 도시 이미지와 국제 스포츠 행사 운영 역량을 함께 보여준 자리였다.

안전한 행사 운영을 위해 전북자치도는 전주시, 경찰청, 대한체육회 등과

5차례 협의회를 열고, 현장 실습과 합동 점검을 병행했다. 경찰과 자원봉사자, 공무원 등 380여 명이 교통과 안전 관리를 담당했고, 전북대학교 간호학부·운동처방학과, 전주대학교, 완주소방서 등과 연계한 의료 대응 체계를 마련해 참가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켰다.

문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마련됐다. 부대행사로는 올림픽 종목 체험 부스, 팬사인회, 완주 인증 포토존 등도 운영돼 참가자 만족도를 높였다. 교통 통제에 따른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사전 안내도 철저히 이뤄졌다.

이번 대회는 단순한 러닝 행사를 넘어 ‘K-스포츠’와 ‘K-문화’가 결합된 전국민 참여형 축제로 발전했다. 전국에서 모인 참가자들이 전주를 함께 달리며 올림픽 유치에 대한 열망을 공유했고, 이는 전주의 문화적 경쟁력과 국제 스포츠 도시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도는 이번 대회 운영 경험과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국제 스포츠 대회 유치에 필요한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져갈 계획이다. 전주는 문화·관광·스포츠 인프라를 고루 갖춘 도시로서, 향후 하계올림픽 유치에 걸맞은 준비된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올림픽데이런은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도민의 열망과 전북의 비전을 전국에 알리는 출발점”이라며 “국민과 함께 그 꿈을 향해 나아갈 것이며, 전북이 세계를 향해 도약하는 데 더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전북=정훈 기자 taiji1819@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부산시

RTD 명칭 ‘부산커피 맛썰’ 결정

부산시가 부산을 대표할 커피 음료의 명칭을 확정했다.

시는 부산형 커피 음료(RTD) 명칭을 지난 14일 ‘월드챔피언 부산커피 맛썰’로 최종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RTD(Ready To Drink)는 바로 마실 수 있도록 제조된 캔·병·팩 형태의 음료를 뜻한다.

최종 명칭은 부산 사투리 ‘맛썰’에서 유래했다. 단순한 동의 표현을 넘어 커피 맛과 품질의 확산을 담은 커피 음료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부산=이도식 기자

울산시

‘자연주의 정원’ 우수디자인 선정

울산시는 태화강 국가정원 내 ‘자연주의 정원’이 산업통상부 주최 ‘2025 우수디자인(Good Design) 상품 선정’에서 공간·환경 디자인 부문 장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선정은 1985년부터 매년 진행되며 제품·환경·건축·패션·포장 등 27개 분야에서 우수 디자인 상품에 정부 인증을 부여한다. 올해는 기업과 공공기관이 출품한 1030점 가운데 81점(7.5%)이 본상을 받았다.

수상작인 자연주의정원은 1만 8000㎡ 면적에 조성된 공간으로, 세계적인 정원 디자이너 피트 아우돌프가 설계한 아시아 최초의 공공정원이다. 뉴욕 하이라인 파크와 시카고 루리가든을 만든 그의 작품이다.

/울산=손병호 기자 metrobusan5@

대구시

오늘부터 ‘국제기계산업대전’

대구시는 기계·첨단소재·부품산업 분야의 최신 기술과 동향을 볼 수 있는 ‘2025 대구국제기계산업대전’이 오는 18~21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전시에는 14개국 267개 사가 707개의 부스를 운영한다.

대구국제자동화기기전과 국제첨단소재 부품산업전을 통합했으며, 디지털 전환(DX) 및 인공지능 전환(AI) 기술 등 최신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대구국제자동화기기전에서는 공장자동화, 자율제조, 스마트팩토리 구현을 위한 공작기계, 설비, 제어기기 등을 전시한다.

/대구=김강석 기자 presskim@

창녕군

‘우포늪 생명길 걷기대회’ 성료

창녕군은 지난 15일 우포늪생태관 야외무대와 우포늪 일원에서 군민과 관광객 4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6회 우포늪 생명길 걷기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창녕군새마을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2010년부터 매년 가을 열리는 창녕군 대표 군민 참여 행사로, 영남권 최초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우포늪의 생태 가치를 알리고 자연 속에서 건강과 힐링을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창녕(경남)=이도식 기자

영주시, 겨울철 한파 선제대응 나서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시행 제설장비 188대, 제설제 880톤 확보

영주시가 다가오는 혹한기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방위 대책에 돌입했다. 폭설과 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일상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 대응 전략이 본격 가동된다.

시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11월 15일~2026년 3월 15일)에 맞춰 ‘2025~2026년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대책은 기후변화로 잦아진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 체감형 안전관리와 현장 대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시는 대설 특보가 발효되면 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부단제장

직보 체계를 통해 상황 판단과 현장 대응을 신속하게 진행한다. 읍면동에 설치된 적설계 11개소와 재난영상 CCTV, SNS 채널을 활용해 실시간 기상상황을 모니터링하며, 행정안전부·경상북도 등 유관기관과의 재난정보 공유망도 함께 운영된다.

제설작업을 위해 트랙터 158대를 포함한 제설장비 188대와 제설제 880톤을 사전에 확보했으며, 주요 도심 구간에는 자동 염수분사장치 15개소가 가동돼 결빙 사고를 예방하게 된다.

한파에 대비한 보호대책도 촘촘히 마련됐다. 시는 경로당과 마을회관 164곳을 한파쉼터로 지정해 운영하고, 난방비를 지원하는 한편, 한랭질환자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해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에 나선다.

/영주(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울진군, 철도연계 ‘도보 관광지’ 주목

금강소나무숲길 등 인기

동해선 철도 개통으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 경북 울진군이 사계절 걷기 여행지로 각광받고 있다. 금강소나무숲길, 해파랑길, 동서트레일 등 테마형 트레킹 코스가 철도 관광과 결합하며, 힐링과 회복을 원하는 여행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경북 울진군이 ‘걷는 도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월, 동해선 철도의 개통으로 서울 등 수도권에서 반나절이면 닿을 수 있는 지역이 되면서, 자연과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도보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다.

울진 전역에 조성된 걷기길은 단순한 트레킹 코스를 넘어 자연 속 치유와 문화 체험이 가능한 복합형 힐링 공간으로 운영된다. 여행객들은 숲과 계곡, 해안길과 온천이 어우러진 울진만의 풍경 속을 걷는 경험을 통해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을 누리고 있다.



울진군은 수도권에서 반나절이면 닿을 수 있는 지역이 되면서, 자연과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도보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금강소나무 숲 경관.

대표적인 걷기 좋은 길로는 금강소나무숲길(천년 숲이 전하는 고요한 치유), 왕피천 생태탐방로(원시 자연을 만나는 생명의 길), 해파랑길(동해를 따라 걷는 낭만의 해안선), 동서트레일(바다에서 산으로 이어지는 장거리 여정), 신선계곡·덕구계곡(온천과 자연이 어우러진 힐링 코스), 평해 명품 맨발걷기길(자연을 발로 느끼는 감성 트레일)이 있다.

/울진(경북)=손기섭 기자

신안군, 태양광·양식장에 천일염산업 위기

염전 가동면적, 14년 만에 35%↓

소금을 생산하는 염전이 태양광발전소와 양식장 등에 잠식되면서 국내 최대 규모의 전남 신안의 천일염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17일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신안의 소금제조업은 726개소(1973ha)에서 허가를 받았으나 이 중 124개소(247ha)에서 휴업 등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염전 가동면적은 지난 2011년에 비해 3분의 1로 급속히 감소했다. 지난 2011년 2662ha에 달하던 염전면적은 올해는 1726ha로 14년만에 35% 감소했다.

또 2015년 4월부터 2025년 8월말까지



신안천일염.

폐전이나 폐업한 염전은 322개소에 면적만도 889ha에 이른다. 10년 만에 여의도 면적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사라진 염전 자리에는 태양광발전소와 새우양식장 등이 들어섰다. 폐전·폐업한 염전의 82%(733ha)는 태양광이 차지했으며, 13%(120ha)는 양식장으로 변했다.

/신안(전남)=양수녕 기자 ysn6313@

부산시, 국가시범도시 조성사업 시행

스마트시티부산 주식회사와 구축

부산시는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된 사업법인과 함께 미래 스마트라이프 실현을 위한 핵심 기반 구축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사업 시행을 총괄하는 스마트시티부산주식회사는 부산시·한국수자원공사·부산도시공사의 공공부문과 엘지씨엔에스(LG CNS)·신한은행·현대건설 등 11개 기업으로 구성된 민간 컨소시엄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사업법인은 향후 5년간 국가시범도시 예정지 내 선도지구 조성하고 다양한 스마트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로봇 혁신 기술을 우선 도입해 교통·생활·에너지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첨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스마트시티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구축 5년, 운영 10년을 포함한 총 15년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